2025-12-11

Economy Brief

12월 FOMC, 분열보다 타협을 선택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12월 FOMC회의 결정과 파월의장 기자회견은 시장이 우려했던 매파적 금리인하 성격은 아님

12월 FOMC회의 결과는 여러 측면(연준내 및 금융시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

12월 FOMC회의는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평가. 다만, 장기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 여부는 주시

요란한 FOMC 회의가 예상되었지만...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싼 미 연준내 극심한 갈등 표출 등 시끄럽고 매파적 금리인하가 예상되었던 12월 FOMC 회의는 시장 우려와 달리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우선, 미 연준의 분열보다 타협을 선택한 시그널은 금리동결 주장 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이다. 25bp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50bp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마이런 이사를 제외하면 2명만이 금리동결에 나섰다. 그 동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다. 금리동결보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크게 판단한 것일 수 있지만 연준의 분열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한 연준내 타협의 산물 혹은 파월의장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 있음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타협의 산물은 단기 국채 매입 조기 시행이다. 미 연준이 오는 12일부터 지급준비금이 충분해질 때까지 단기 국채 매입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아니지만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달러화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미 연준이 금융시장과 타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파월의장은 추가 금리 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도 긍정적이다. 이번 성명서에 새롭게 첨가된 문구인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에 대해 금리인하 사이클 중단보다 신중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히는 동시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함으로써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낮추어 주었다. 관련하여 파월의장의 "우리는 중립을 향해 움직였고, 지금은 중립 범위 상단에 있다"는 발언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미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12월 미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사실상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26년 GDP 성장률은 1.8%에서 2.3%로 상향되었다. 미 정부 셧다운 영향이 26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요인 중에 하나지만 AI 투자 등이 미국 경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반면 26년 PCE 물가 상승률은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파월의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새로운 관세가 없다면 재화 인플레이션이 26년 1분기에 정점을 기록" 할 것이라고 예상보다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우려했던 고용시장도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6년 실업률 수정 전망치는 9월과 동일한 4.4%로 제시했는데 이는 25년 실업률 전망치 4.5%보다 0.1%p 낮은 수치다.

12월 FOMC회의는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평가. 다만, 장기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 여부는 주시

12월 FOMC회의 결과는 우려와 달리 매파적 인하가 아닌 여러 측면(연준내 및 금융시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1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잠재해 있지만 이는 향후 발표될 경제 데이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연말/연초 신임 연준의장 선임이 금리인하 사이클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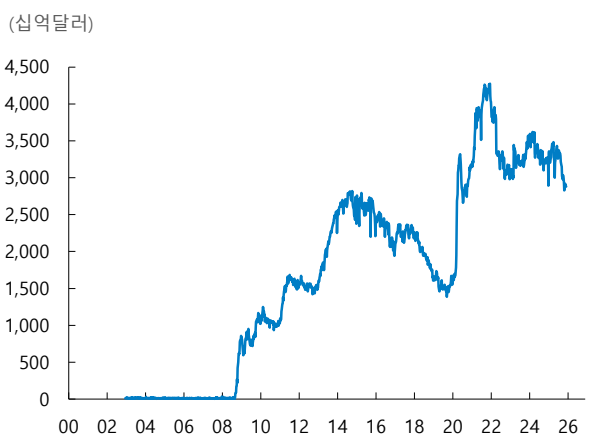
다만, 12월 FOMC회의 결과 안도감으로 10년 국채금리도 다소 하락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음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장기 국채금리 추이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1. 낙관적으로 수정된 12월 미 연준 수정 경제전망치

	2025	2026	2027	장기
GDP 성장률	1.7	2.3	2.0	1.8
25년 9월 전망	1.6	1.8	1.9	1.8
25년 6월 전망	1.4	1.6	1.8	1.8
실업률	4.5	4.4	4.2	4.2
25년 9월 전망	4.5	4.4	4.3	4.2
25년 6월 전망	4.5	4.5	4.4	4.2
PCE 물가	2.9	2.4	2.1	2.0
25년 9월 전망	3.0	2.6	2.1	2.0
25년 6월 전망	3.0	2.4	2.1	2.0
코어 PCE 물가	3.0	2.5	2.1	-
25년 9월 전망	3.1	2.6	2.1	-
25년 6월 전망	3.1	2.4	2.1	-
연방기금금리	3.6	3.4	3.1	3.0
25년 9월 전망	3.6	3.4	3.1	3.0
25년 6월 전망	3.9	3.6	3.4	3.0

자료: FRB,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지급준비금 추이: 미 연준이 지준 관리 매입(reserve management purchases·RMP) 개시를 결정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